

“세상의 소리는 모두 저마다의 노래”

광주 출신 이미레 동화작가

‘시계 수리점...’ ‘앵앵이와...’ 발간
201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등단
“교사생활하며 동화쓰니 더 행복”



“제 동화의 주제는 타인과 소통하고 생명과 교감하는 삶입니다. 삶의 경험이 적은 어린이들은 책을 통해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지요.”
현재 교사인 광주출신 이미레 동화작가가 최근 2권의 동화책을 펴냈다.

“정년이 2년 남았다”는 이 작가에게선 초등학교 교사로서 반평생을 살아온 이의 자긍심과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과의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한편으론 오랫동안 초등 교사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이에게서 배어나오는 따스한 정감도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공무원 하면 ‘규칙’에 익숙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생활이 삶의 무늬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 그러나 창작은 정해진 규칙 너머의 다양한 삶을 그리려는 의미와 관련돼 있다. 동화 쓰기가 ‘교실 밖으로 나와 자유로운 날개’로 시원한 바람을 맞는 행위에 비견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번에 이 작가가 발간한 단편동화집은 리틀 씨 언덕 출판사에서 발간한 ‘시계 수리점의 아기 고양이’와 장편동화 ‘앵앵이와 매암이’. 전자는 길고양이와 어린이를 모티브로 한 동화이며, 후자는 곰뱀이와 매미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다.

특히 단편집 ‘시계 수리점의 아기 고양이’에는 지난 201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동명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동화마다 길고양이와 어린이들이 등장해 서사의 재미와 잔잔한 감동을 준다.

“2012년과 2013년에 광주교육대학교에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초등국어교육 공부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당시 동화로 신춘문예에 도전했는데 운 좋게도 당선이 됐지요. 길고양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었는데, 그렇게 내 오랜 꿈을 길고양이들이 이뤄줬습니다.”

이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시간이지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 고작 반달을 삽니다. 그런데 매미는 뜨거운 한여름 온 세상을 노래로 채워주요. 우리 아이들도 두 마리의 굽뽕이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는 “세상의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저마다의 노래”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노래를 갖고 태어나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며” 산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오십대 초반에 신춘문예에 등단했지만 작가는 오랫동안 문학에 대한 작사 사랑을 품고 살았다. 80년대 청춘의 시절 “내 삶을 지배한 건 시”였다는 말에서 문학에 대한 열망, 창작에 대한 숨은 열정이 읽혔다. 한동안 동인 활동을 하면서 ‘남도규수문학’이라는 동인지지를 3회까지 발간했다. 훗날 이어진 뜻했지만 “운명처럼 동화를 만났기에” 그것만으로도 족했다.

교사로 재직하기 때문에 동화 쓰기가 어렵겠다는 물음에 “오려려 더 행복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시간의 부족보다 상상력의 부족이 오려려 힘들다는 얘기로 들린다. 아이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며 이야기 씨앗을 찾으려 하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아마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일 터다.

지금까지 이 작가는 11개 초등학교를 거쳐 왔다. 돌아보면 아득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다. 앞으로라도 마음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쓸 생각이다.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아요. 그 웃음이 있어 내 삶도, 동화도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맙거든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기억되지 못하는...’ 온라인 공개

세월호·코로나 희생자 진혼무 승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의 실구리를 감게 되고, 그 실구리를 감아 가면 영원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사상가이자 민중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이 1927년부터 1945년까지 저술한 ‘성서조선’에 실린 구절이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최근 이 구절을 모티브로 한 ‘기억되지 못하는 운명들의 기억’(사진)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이 작품은 전남도립국악단이 그동안 선보였던 온라인 공연 ‘감성처방전’의 시즌 3 첫 번째 공개작으로, 세월호와 코로나 19 희생자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물 속 진혼무로 승화한 작품이다.

5분 5초 분량의 이번 영상은 ‘기억되지 못하는 운명’을 기어아 살아내야 하는 이들의 쓸쓸함을 연민의 몸짓으로 위로하고자 했으며, 공연 무대를 물속으로 옮겨 무용수의 감정 변화를 흑백 미장센으로 담아내 깊은 여운을 더한다. 영상에는 흥은주 단원이 등장하며, 연주와 노래에는 송진영(신디), 윤정아(피리), 방기순(코러스)이 참여했다.

물속 춤 ‘기억되지 못하는 운명들의 기억’은 전남

남도립국악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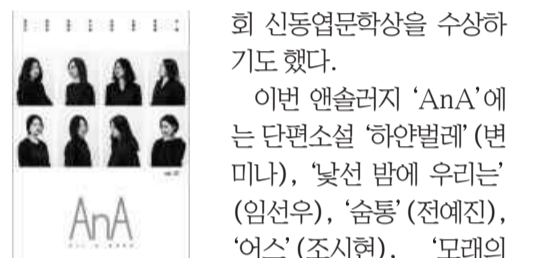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단순한 무대 영상이 아닌 감각적인 연출과 미장센을 덧입힌 공연 영상을 제작해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앤솔리지 ‘AnA’ 펴내

차세대 문인들의 신작을 엿볼 수 있는 문학 앤솔리지 ‘AnA’가 나온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 선정 작가 8인의 작품을 수록한 앤솔리지 ‘AnA(Axt & ARKO)’를 발간했다.

창작아카데미는 2016년부터 진행돼온 차세대 예술가 지원사업이다. 만 35세 이하 예술가(2021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창작 주제,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2020년 문학 분야에서는 소설에 변미나·임선우·전예진·조시현·조진주·지혜가, 시 분야는 조해주·주민현이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주민현 시인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활동 중 제38



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앤솔리지 ‘AnA’에는 단편소설 ‘하얀발레’(변미나), ‘낯선 밤에 우리는’(임선우), ‘숨통’(전예진), ‘어스’(조시현), ‘모래의 빛’(조진주), ‘미미가 내게 말하려고’(지혜)가 실렸다. 또한 시에는 ‘아이스박스’ 외 9편(조해주), ‘피아노의 우연한 탄생’ 외 9편(주민현)이 수록됐다.

한편 이번 ‘AnA’ 발간은 예술위와 출판사 은행나무와의 결과물이며 오는 10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과거 허물 무겁게 등에 지고 작품 쓰겠다”

신경숙, 표절 사과하고 6년만에 신작 ‘아버지에게 갔었어’ 출간

“아무리 생각해보도 문학은 제 인생의 알리바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표절 파문 이후 6년 만에 신작 장편을 출간한 소설가 신경숙이 “과거 제 허물과 불찰을 무겁게 등에 지고 앞으로 새 작품을 써 가겠다”고 밝혔다.

신경숙은 3일 장편소설 ‘아버지에게 갔었어’(창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제 부주의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작가는 지난 2015년 단편 ‘전설’이 일본작가 미시

마 유키오의 ‘우국’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9년 중편 ‘배에 실린 것을 강은 알지 못한다’를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지면을 통해 사과를 표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숙은 다소 긴장한 듯한 얼굴로 “젊은 날에 저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저 자신도 발등에 짚힌 쇠스랑을 내려다보는 심정으로 지냈다”고 말했다.

신경숙의 신작 출간은 단행본으로는 8년 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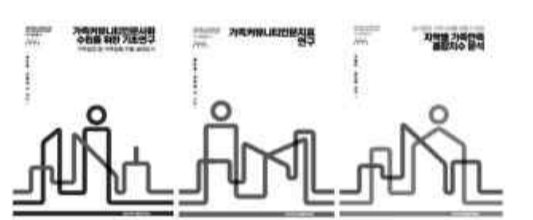
며, 장편으로는 11년 만이다. 여덟 번째 장편 ‘아버지에게 갔었어’는 엄마가 입원하자 J시 집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화자가 돌보러 가면서 시작되는 소설이다. 한국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으며 묵묵히 산 아버지는 지식들이 학사모를 쓴 사진을 보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 흔히 가부장적으로 그려졌던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가족커뮤니티 인문학 조명 총서 발간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교수)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이 가족과 연동되는 다양한 제도, 관행, 문화가 초래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총서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 시리즈는 급변하는 가족커뮤니티를 인문학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패러다임’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간 총서는 가족구성권연구소와 협동연구의 결과를 담은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추주하·나영정 외 10인),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의 융복합 연구물인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연구’(류도향·추주희 외 4인), 가족커뮤니티와 관련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지역별 가족만족지수 분석’(고광아·허진원) 등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미라 원장은 “이번 총서는 가족커뮤니티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나아가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내외적 협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법성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첨단 돌솥 감자탕 산포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평강안마지압원 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 ☎ 062)527-6664, 010-2645-66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서안대로95(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가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	In.ssalon_sia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향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법무사 김은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번초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연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보물섬희활어희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드림케어슬루션 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류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쌀)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미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